

# 양고기일일시장뉴스 (2026.10.11)

(주)로드프리미엄 | 대상: 호주 / 뉴질랜드

## 오늘의 핵심

- 미국 ITC의 수입 양고기 공청회가 이번 주말(뉴질랜드 시간 토요일)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. ITC는 11월 13일까지 미국 양 산업이 피해를 입었는지 판정합니다.
- 미국 양 산업은 수입 양고기가 미국산보다 19.5% 싸게 팔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뉴질랜드산의 현재 관세는 13.2%이며, 한 대형 수출업체는 관세 인상 가능성을 80%로 봤습니다.
- 호주 무역용 양 지표(NTLI)는 10/9 주간 1,153¢/kg로 5% 반등했고, 머튼 지표는 829¢/kg(+3%)입니다.
- 뉴질랜드 양 스케줄(17.5kg YX 북섬)은 10/12 기준 두당 NZ\$209로 보합이고, 1년 전보다 17% 높습니다.
- 우루과이의 1~9월 양고기 수출은 18% 줄어, 남반구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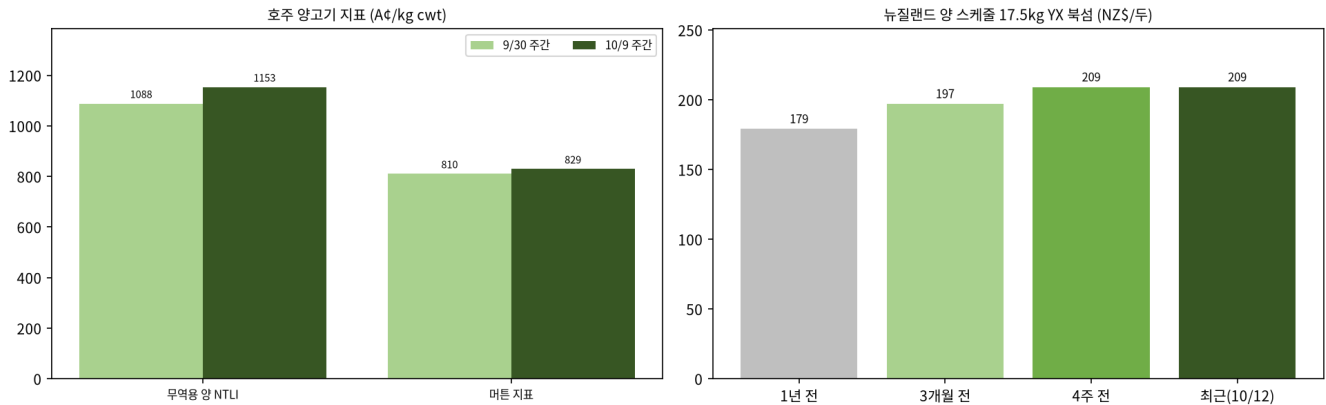
## 국가별 오퍼가격 참고 지표

실제 한국향 오퍼가격은 비공개이므로, 아래는 산지 경매가, 가공업체 스케줄, 가격지수 등 공개 참고 지표입니다.

| 국가   | 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근 가격           | 변동                 | 출처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호주   | 무역용 양 지표 NTLI (10/9 주간)              | 1,153 A¢/kg cwt | 전주 +5%             | MLA 주간 현황          |
| 호주   | 머튼 지표 (10/9 주간)                      | 829 A¢/kg cwt   | 전주 +3%             | MLA 주간 현황          |
| 호주   | NTLI (9/30 주간, ABARES)               | 1,088 A¢/kg cwt | 전년 -8%             | ABARES             |
| 호주   | 발라랏 양 평균 (10/9 주간)                   | 1,226 A¢/kg cwt | -                  | MLA 주간 현황          |
| 호주   | AuctionsPlus 재입식 양 지표 ARLI (10/7 주간) | 1,329 A¢/kg cwt | -10¢               | AuctionsPlus       |
| 뉴질랜드 | 양 스케줄 17.5kg YX 북섬 (10/12)           | NZ\$209/두       | 4주 전 209, 1년 전 179 | interest.co.nz     |
| 뉴질랜드 | 양 스케줄 17.5kg YX 남섬 (10/12)           | NZ\$206/두       | 4주 전 205, 1년 전 176 | interest.co.nz     |
| 뉴질랜드 | 대미 양고기 관세 (현행)                       | 13.2%           | 인상 여부 ITC 심사 중     | Farmers Weekly NZ  |
| 뉴질랜드 | Westpac 양고기 가격지수 (10/7)              | 686             | 12월 681 전망         | Westpac Agri Bites |

## 국가별 가격 변화 그래프

양고기 국가별 가격 변화



자료: ABARES, MLA 주간 사항, [interest.co.nz](http://interest.co.nz)

## 국가별 주요 뉴스

### 호주

- 이번 주 양 출하는 132,260두로 15.6% 줄었고, 비가 내리면서 재입식 시장이 강해졌습니다. ([MLA 주간 사항](#))
- Mecardo는 양 공급이 다시 줄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반등했다고 분석했습니다(10/9). ([Mecardo](#))
- 미국은 15억 달러 규모의 호주산 양고기에 대한 관세를 검토하고 있으며, 호주 업계는 ITC 정식 절차로 대응하고 있습니다. ([Ground News](#))

### 뉴질랜드

- 뉴질랜드육류산업협회(MIA)는 워싱턴 ITC 공청회에 참석해, 미국 경제학자를 고용하는 등 관세 인상 반대 논리를 준비했습니다. ([Farmers Weekly NZ](#))
- ITC가 피해를 인정하면 12월 1일까지 구제조치 공청회를 열고, 대통령은 권고를 받은 뒤 60일 안에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. ([Farmers Weekly NZ](#))
- 미국 양 산업은 미국 내 소비에서 국산 비중이 30%까지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. ([Farmers Weekly NZ](#))
- Westpac은 양고기 수출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 근처라고 평가했습니다. ([Westpac Agri Bites](#))

### 참고: 경쟁 공급국

- 우루과이의 1~9월 양고기 수출은 약 650만 kg으로 18% 줄었습니다(우루과이 양모청). ([World Beef Report](#))

## 한국 수입업체 관점 시사점

- 미국의 관세 인상 판정(11/13 전후)이 4분기 최대 변수입니다. 관세가 오르면 호주·뉴질랜드산 대미 물량이 아시아로 돌아 한국향 오퍼가 내려갈 수 있으므로, 대량 계약은 판정 뒤로 미루고 당장 필요한 물량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호주산: 지표가 5% 반등해 단기 오퍼 인하 기대는 줄었습니다.
- 뉴질랜드산: 스케줄이 전년 대비 17% 높고 수출가격도 최고 수준이라, 관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강세 오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

## 한 줄 요약

미국 ITC의 양고기 관세 판정(11/13)을 앞두고 호주·뉴질랜드산 가격은 강세지만, 판정 뒤 아시아로 물량이 돌 가능성에 대비해 계약 시기를 나누는 것이 유리합니다.